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인: 오승수 시몬 주임신부 | 편집: 소공동체지 편집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성모 승천 대축일 (2023년 8월 15일)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카1, 48-49)



성모승천 | 그림 : 심순화 카타리나 (1961-), 2001, 아크릴, 60×50cm, 작가소장.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루카 1, 50)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259번 '성모 승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259

성모 승천

성모

Andantino *mp* Penot 이문근 편곡

성모 마리아하늘 나라에 들어 올림 받으시
 니 우리도 천국을 그리며 주
 찬미-하리다 찬미-하리다 *Fine*

mf

1. 성자 잉태하신 기록 한 몸 무덤
 2. 아 들 예 수 오른편에 앉 아 면 류
 3. 마 음 깨 끗한 이 들은 모 두 주 님

속 에 안 계 시 게 많 은 천 사 두 루 옹 위
 관 을 받 으 시 니 천 사 성 인 찬 미 하 는
 뵈 게 되 오 리 니 성 모 우 리 덕 을 향 한

D.C.

시 켜 부 활 승 천 케 하 셧 네
 노 래 하 인 들 가 득 퍼 저 가 네
 길 로 인 도 하 여 주 읊 소 서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 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교회의 성경위원회)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일곱째 나팔

(묵시 11,19; 12,1-6.10)

19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 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12,1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2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4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5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6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10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루카 1, 39-56)

39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47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48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51 그분께서는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52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53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54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단어 하나 / 최대 문장 하나)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동네방네 메아리

- 전쟁과 분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드리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아이러니함을 느끼고, 환경문제와 미래에 대한 고민도 날로 커집니다. (NV1)
-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내 안에 장점과 단점 (선함과 악함)이 공존함을 느끼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었는데,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시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NV1)
-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에게 불편한 가라지를 뽑으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 역시 가라지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느님 말씀대로 내버려 두고 살다 보니 세월 속에 모든 가라지가 그사이 밀이 되어 소중한 보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NV2)
- 우리는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NV2)
-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힘을 믿고, 생활 속 어려움에 처할 때 성령께 의지하며 도움을 얻길 희망합니다. (RC1)
-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이 늘 지켜 보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RC1)
-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죄를 늘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RC1)
-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일상 속의 걱정거리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RC2)
- “끝”까지 견딜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끝을 아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RC2)

7.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8.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9.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0.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11.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성가 셀라책 244번 ‘어머니’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244

어머니



최현숙 아가다

1면 동이 트이듯 나 타나 신 - 달과 같이 아 - 림 - 답고 해 주
 2면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 기 - 빠하 - 소서 주

5와 같이 빛나는 저 여인은 저 - 여인은 누구 실까 내 주
 함께 계시니 복되 - 도다 여인 중에 복되 시도 다 주

9영혼이 주님을 찬미하여 내 구세주 생 - 각에 기
 념의 종이니 그 대로 제게 이 루 - 어 지 - 소서 그

13뽕이 넘치네 샘물 - 처럼 복되 다 아름다운 성모
 응낙의 말씀이 사람 되어 당신 안에 자라 시도 다

17항기로운 꽃잎에 부딪는 햇살과 산들
 초록 잎 새위에 내리는 빗물은 세상

21바람에 실려 온 당신의 숨 - 결 천우
 죄아파 하시는 당신의 눈 - 물 우

25주의 성모여 우리 위하여 사랑하느 아드님께 그
 리 위하여 사랑되신 주의 사랑받는 어 - 머니 그

29인내 그 믿음 그 검손까지 칭하여 빌어 주옵소서 -
 온유 그 사랑 그 순종까지 칭하여 빌어 주옵소서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당 성서 공부 질문과 응답

주임신부님께서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해주시는 성서 공부를 본당 홈페이지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궁금한 점은 반장님이나 “질문 링크 (QR Code)”를 통해서 오승수 시몬 신부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레위기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제물을 바칠 때, 제단 주위 제물의 피를 뿌리거나 심지어 신체 부위에 바르는 묘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장면은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미신에서 주로 행하는 것으로 선입견이 있어 처음에 성서를 읽었을 때는 설마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 (기독교나 개신교 모두) 들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매우 꺼리거나 옳바르지 않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조상들은 근래 제사 풍습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물론 예전에는 그랬지만, 현재에도 그것을 하고 안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마치 우리 원래부터 그런 거 안했어 하는 식의 시선이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즉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척"이라기보다는 "인정"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A

지금 우리의 가톨릭 신앙은 구약에 멈추어 있거나 구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그러한 모습, 예를 드신 피를 가지고 뿌리고 몸에 바르고 하는 등의 행위는 그렇게 성체성사의 모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성체성사에도 피는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성체를 영할 때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제만 영하지만 우리들도 피를 마시고 있고 살을 먹고 있습니다. 그 살이 빵의 모양으로, 그 피가 술의 모양으로 다가올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구약에서 생명인 피는 하느님의 영역이기에 접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금지하면서 동시에 피를 접하는 모습을 간혹 보여주기도 하죠. 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구약에서도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생명이기에 금했던 피를,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기에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와 살을 먹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 구약의 규정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의미를 담아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체성사는 구약의 그러한 제사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약의 그러한 모습을 초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레위기에서 자주 이목을 끄는 부분은 "흠 없는" 묘사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해되고 공감은 됩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이의 마음을 표현했고 저라도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만 뒤로 빠져 생각해 보면, 흠이 있고 없고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해칠 수 있고 그 어떤 대상을 구분하고 갈라지게 한다는 마음은 지울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흠이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단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서는 오랜 기간이 지나도 진리라는 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응하는 마음일까요.. 준비하는 이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방법적인 것이 딱히 없어서 그런 줄 알지만, 그 재물이 흠이 있든 없든, 그 마음은 본인과 주님이 다 아시는 것 아닐까요?

A 이 부분도 1번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관점이 물질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다분히 큼니다. 이 또한 진정한 거룩함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보아야지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신앙의 결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거룩함이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이러한 모습이 신약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할 때 흠없는 것을 고르려고 하지 하자가 있는 것을 고르려고 하지는 않죠. 사실 레위기의 규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Q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이 부분을 읽고 들었던 생각은 "한번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정말 무자비 하시다", "만약 아론이나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셨을까?"였습니다. 구약의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으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왠지 이 부분에서는 잣대가 좀 가혹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6장 1-34절, 아론은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치고 숫염소 하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자젤(불모지를 돌아다니는 귀신 이름)에 숫염소를 보낸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속죄하는 것으로는 부족한가요. 굳이 아자젤한테까지 뭘 보내야 했던것인지...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서 성서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A 아자젤, 악의 신의 모습인데 그러한 존재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 충분히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의 시대가 몸담고 있었던 근동의 종교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유다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교가 처음부터 철저한 유일신교를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느슨한 유일신교의 상태에서 초반에는 여러가지 이교적인 모습이 구약의 전통안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자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또한 1번 질문과 2번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또한 유일신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두 아들이 불을 잘 못 피워서 죽은 것은 레위기의 저자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사의 지극하고도 지극한 거룩함을 강조하려는 장치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제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레위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무서운 하느님이 정의로운 하느님 안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사의 거룩함을 마음에서 찾으십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기억이 난다면 먼저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에 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찾는 예수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이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 춥던 겨울날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리 수업을 받으며 좋은 인연들도 만나고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주변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부러워서 스스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가 잘 되지 못한 적이 있어서 시작 전부터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걱정들은 무색할 만큼 이번 교리 수업과 세례식은 제게 더욱 알차고 의미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리 수업을 시작할 때에는 다들 아는 분들도 별로 없고 성당이란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였는데, 늘 열심히 준비해주시는 교리 선생님과 선교부 덕택에 성당과 가톨릭에 대해서 많이 친숙해진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가끔은 엉뚱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제 질문들도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셔서 제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세례식은 새로 태어나는 날과 다름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막상 그날을 겪고 나니 많은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도 생겨나네요. 앞으로도 더욱 신앙심을 키워나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아우구스티노)
- 이번 세례식…사실 인생에서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니 결혼식(관면 혼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인데… 제 마음가짐이 그 정도만큼이었나 생각하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하지만 그 특별했던 순간은 다시 생각해도 너무 크나큰 감동이에요. 저는 그날의 마음가짐을 돌이켜보자면 “하느님의 축복 아래에서 하느님 인도하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느낌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들 다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세례자로서 비로소 성가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구나 싶어서 뿌듯했고요. 사실 육아에 집중하다 보면 하느님의 손길을 매 순간 느끼며 살기는 힘들겠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문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내려 주신 은총 잊지 말아야죠. (문인영 플로라)
-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스스로 발을 들여 놓은지 반년에 가까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내가 과연 성실히 교리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또 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시작했던 시간들은 추운 겨울에서 어느덧 뜨거운 햇살이 쬐는 여름으로 계절이 변하며 내 마음도 따뜻함을 지나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함께 한 동기 예비신자분들과 매주 저희들을 귀하게 대해 주신 교리반 선생님과 선교부 덕분에 그 동안 동경하던 세례 성사를 통해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초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라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무언가 성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생각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성당에 나오면서 나에게 있던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만큼 이 또한 스스로에게는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세례를 받고서도 아직 신앙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고민은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할수록 매일 마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것은 누구도 쉽게 누릴 수 없는 축복이지 않을까 합니다. (변우주 미카엘)

- 마음과 날씨가 혹독하게 추웠던 미시간의 첫 겨울...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성당을 찾게 되었고 아이들의 세례와 첫영성체, 저희 두 부부의 세례까지...의미있고 거룩한 반년을 보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 연상됩니다. 모르는 것이 많고 서툰 아이같은 예비자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신부님을 비롯한 성당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교리 선생님과 선교부 자매님들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비 교리자인 저희를 포용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서 저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주님께 가는 길 입구까지 무탈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개인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님을 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례를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혜영 미카엘라)

